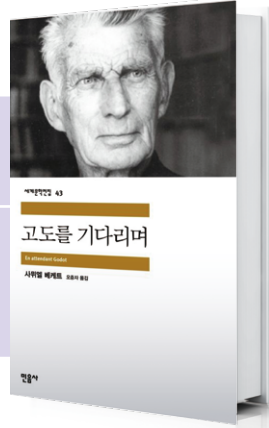


# 부조리를 조리하기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mjo@krihs.re.kr)

## 고도를 기다리며

1953년 발표(초연)  
사무엘 베케트 지음  
오증자 옮김



3 블라디미르 그럼 갈까?  
에스트라공 가자.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이 마지막 장면으로 함축할 수 있다. 이것의 장르와 이것을 대표하는 ‘부조리(Absurd)’라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주연 두 명의 이름과, 극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글로는 150페이지 이상, 시간으로는 두 시간여의 극 내내 내용상으로나 인물 간 관계로나 의미적 고찰으로나 그 어떤 진전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극을 이렇게 뛰어나게 함축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라는 점. 바로 이것이 연구자의 서가에 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희곡을 맨 먼저 떠올리게 된 이유다.

부랑자에 가까운 두 사람이 고도(Godot)라는 어떤 남자를 기다리는 것을 내용의 전부로 하는 이 극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대는 첫 장면부터 앞서 소개한 기념비적인 마지막 장면까지, 모든 장면마다 기존 극의 모든 형식과 기대를 부정하려고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다. 대화는 전혀 이어지지 않으며, 1막의 다음 날인 것처럼 시작되는 2막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 흐름마저도 정상적이지 않다. 2막의 내용을 1막에 미리 언급하는 순환적 구조를 보이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순환적 구조를 철저히 따르지도 않는다. 모든 대화는 부조리하며, 사건의 구성과 흐름도 부조리하다. 포조와 럭키라는 지나가는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대화나 행태도 부조리하고,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원·환경경제, 수자원·하천정책, 에너지·환경정책, 경제성분석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조리 있게 설명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도 이 작품은 책으로서나 연극으로서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해괴한 작품이 어째서 그토록 꾸준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생경한 형식의 극을 통해 무언가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려는 것도, 퇴폐적이거나 폭력적인 자극을 주려는 것도 아닌, 간혹 헛웃음만 피식거리게 만드는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은 무엇일까.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작품을 읽고, 즐기고, 기억하게 되는 이유를 어렵듯이 넘겨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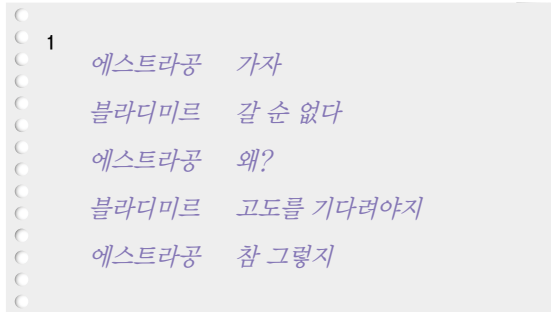
2 블라디미르 수염이 있냐, 고도 씨는?  
소년 네.  
블라디미르 노란 수염이냐, 아니면 ..... (망설이다가) 까만 수염이냐?  
소년 (망설인다) .....흰 수염 같아요.

고도가 누구인지,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심지어 고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등장인물들은 뭐 하나 고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그럼 왜 기다리고 있나 싶지만, 동시에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이 무의미한 대화와 행동들의 나열 속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독자도 자연스럽게 고도를 기다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이 상징하는 ‘고도’가 무엇인지를 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작품은 고도가 누군지, 무엇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고도가 무엇인지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끝끝내 고도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작품이 끝났을 때 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이 작품을 불쾌한 작품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고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기에, 책장을 덮을 때 독자의 마음에는 분노가 아닌 여운이 남는 것이다. 오히려 이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은 ‘기다림’에 있다. 그것도 무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기다림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목표를 놓을 수 없다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보다 딱히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둘이 늘어놓는 수많은 부조리한 대화와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이 불필요하고 불가해할지라도 그보다 더 나은 대화와 행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고도에 대한 빈약한 실마리를 가지고도 고도를 기다리면서, 아득한 삼천포로 빠져들며 떠들어대는 둘의 모습은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딱히 생경하지도 않다.

작품의 흐름과 서술은 생경하지만, 이 작품이 보여주는 날것의 모습 자체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기에는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곤욕일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작품은 확고부동하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결코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 말이다. 작품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에스트라공이 가자고 보채면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상기시키고 극을 이어나간다. 어쩌면 등장인물의 목표가 이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 작품도 드물 것이다.

사실 부조리 그 자체인 이 극을 가지고 조리 있는 글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으로 글을 쓴다. 나도 그렇다. 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부조리를 조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 희곡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당당한 시도는 최선의 시도로 인정받았다. 우리도 이 부조리의 세계에서 좋은 삶든 더 나은 조리법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작품 정도는 되는 파격적인 시도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여기에 늘어놓은 이런저런 이유보다, 이 작품의 일독을 권하는 까닭은 합리성과 치밀함에 지친 머리에 신선함을 한 번 불어넣기에 또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막 나가는 무의미한 흐름에 머리를 맡겨 떠다니다 보면 묘한 일탈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게 이 작품의 진짜 매력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하며, 동료 연구자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자” / “갈 순 없다” / “왜?” / “연구 마저 해야지” / “참 그렇지”. 🍀

**연구자의 서가 63회 예고**

김미영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다음 필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